

10일 만에 32만 관객…‘서복의 실험’ 성공적

티빙서도 실시간 인기 영화 1위에 제작비 회수·OTT 경쟁 우위 확보 영화계 “극장·OTT 상생 확대될 것”

공유와 박보검 주연작 ‘서복’이 25일 현재까지 극장에서 전국 누적 32만여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치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화 개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서복’은 15일 극장과 함께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에서 동시 공개하는 대안을 택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영화 최초의 공개 방식이다. ‘서복’의 실험과 성과가 향후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신규 개봉작에 대한 갈등 입증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과 전직 정보요원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영화 ‘서복’의 한 장면

통해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에 관해 묻는 작품. 공유와 박보검이 각각 정보요원과 서복 역을 연기해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말 극장 개봉을 예고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미룬 끝에 새로운 공개 방식을 선택했다.

영화는 이후 10여일 동안 32만여 극장 관객을 모았고, 티빙에서는 25일 현재 ‘실시간 인기 영화’ 1위에 올라 있다. 극장 관객수는 최근 신규 개봉작보다 많은 추세이다. OTT라는 또 다른 플랫폼이 있음에도 이 만한 성적을 거둔 것은,

감염병 확산의 여파를 뚫고 3월 말 개봉한 ‘자산어보’처럼, 신규 개봉작에 대한 관객 갈증이 컸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극장+OTT, 계속 간다”

‘서복’의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엽기적인 그녀’의 과거을 감독이 한지민·강하늘·임윤아 등과 함께 최근 촬영 중인 로맨스 영화 ‘해피 뉴 이어’도 올해 연말 극장과 티빙에서 동시 공개한다. 25일 CJ엔터테인먼트 전성

곤 팀장은 “제작사 및 티빙 측과 합의한 방식이다”면서 “극장과 함께 연말 시즌 OTT에서도 소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작사는 제작비를 회수하고, 티빙은 넷플릭스 등 다른 OTT와 벌이는 콘텐츠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도 배경이 됐다.

영화계는 이런 방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뉴스레터’에서 ‘서복’이 “한국 영화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며, “관객의 빠른 관람 형태 변화를 수용해 극장과 OTT가 상생하는, 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영화계에서도 극장과 미디어 플랫폼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같은 멀티플랫폼 활용이 일반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영화관계자는 “극장과 OTT는 신규 콘텐츠 수급을, 투자배급사와 제작사는 제작과 투자배급업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방탄소년단 ‘아이돌’ 뮤비 9억뷰 돌파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9억뷰를 돌파했다. 25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2018년 8월 선보인 이들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 어 셀프 걸 앤서’의 타이틀곡 ‘아이돌’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5시59분 9억건을 넘겼다. 팝가수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에 참여한 뮤직비디오 조회수까지 합치면 10억뷰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돌’은 공개 직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을 포함해 모두 31편의 역 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장필순-백지영 듀엣곡 ‘그 다음날’ 발표



장필순

백지영

포크계의 전설 장필순과 발라드 보컬리스트 백지영이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이 25일 신곡 ‘그 다음날’(We'll Find The Day)을 선보였다. 아이유의 ‘밤편지’를 공동 작곡한 김희원 작곡가가 따뜻한 멜로디와 가사로 위로를 전한다.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장필순은 25일 SNS를 통해 “서울과 제주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며 완성한 노래”라며 “또 하나의 음악 추억으로 남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지영도 “장필순 선배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노래가 건네는 위로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홍 ‘국경없는 수의사회’ 홍보대사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국경없는 수의사회’ 홍보대사가 됐다. 25일 박수홍은 경기 남양주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봉사활동을 펼치고 ‘국경없는 수의사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수홍은 반려묘 ‘다홍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검은고양이 다홍’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다홍아, 덕분에 아빠 홍보대사 됐다. 고맙다”고 밝혔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박스오피스 1위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박스오피스 ‘역주행’ 인기를 과시했다. 25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따르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은 24일 하루 6만9394명을 모아 누적 관객 180만3400여명을 동원, 다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월27일 개봉한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최근 3~4위권으로 내려앉았지만 ‘저패니메이션’ 마니아층의 선택에 힘입어 순위를 거슬러 오르는 인기를 누렸다. 애니메이션은 누적 발행부수 1억2000만부를 돌파한 만화 ‘귀멸의 칼날’의 첫 극장판이다.

데뷔 9주년 김고은, 팬들에 감사 인사



김고은

배우 김고은이 데뷔 9주년 소감을 내놓았다. 25일 김고은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지금까지 연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연기에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고은은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한 이후 ‘몬스터’ ‘차이 나타운’ ‘계춘할망’ ‘변산’ ‘유열의 음악앨범’ 등 영화와 tvN ‘치즈인더트랩’ ‘도깨비’ 등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하반기 공개하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촬영 중이다.

윤여정의 위대한 도전,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오전 10시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배우 첫 여우조연상 수상 유력 뉴욕타임스 등 현지매체 수상 예견 ‘미나리’ 몇 관왕 오를지도 큰 관심

배우 윤여정(74)이 세계 최대 대중성을 지닌 영화상의 트로피를 거머쥔다. 또 그가 나선 무대 ‘미나리’도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26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 제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가운데 ‘미나리’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품에 안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그는 1957년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아시아권 배우로는 두 번째 수상을 꿈꾸며 25일 설레는 밤을 보냈다.

윤여정은 이미 가장 유력한 여우조연상 수상 후보로 관측돼 왔다. 뉴욕타임스, 바라이어티, 타임, AP통신 등 적지 않은 언론매체들은 물론 시상식 예측 사이트인 미국 골드더비 등으로부터 수상이 예견됐다. 특히 골드더비는 영화전문가와 자사 편집자,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수상 예측 투표에서 윤여



윤여정

정이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스, ‘뱅크’의 어맨다 사이프리트,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등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상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정은 앞서 미국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의 여우조연상을 받아 수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도 했다. 시상식을 사흘 앞둔 23일 미국 독립영화상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여우조연상 트로피까지 받아 안았다.

윤여정은 이 같은 전망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시상식 참석을 준비해왔다. ‘미나리’ 속 딸인 한예리도 현지로 날아가 그

와 함께한다. ‘미나리’의 연출자 정이삭 감독과 주연 스티븐 연 역시 시상식에 참석한다.

정이삭 감독과 스티븐 연은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에 후보로 올라 있다. 이를 비롯해 음악상과 각본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미나리’는 작품상 수상작으로도 거론된다. 다만 중국 출신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가 작품상과 감독상 등 다관왕의 영광을 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미나리’와 정 감독의 수상은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시선이 나온다. 스티븐 연도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의 고 채드워 보스만과 ‘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 등 경쟁한 후보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계인 클로이 자오 감독과 함께 채드워 보스만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로 여우조연상 후보가 된 비올라 데이비스·남우조연상 후보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다니엘 칼루야 등 흑인 배우들이 수상한다면 올해 아카데미상은 또 다시 새로움을 선언하게 된다. 지난해 ‘기생충’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사이 ‘할리우드 보수·백인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움직임에 거는 기대이다.

윤여수 기자

참석인원 최소화…레드카펫 행사 축소

오프라인 시상식 관심집중

미 ABC가 전 세계로 생중계 후보자·후보작 시상자만 참석 수상자 축하파티도 올핸 취소

지난해 작품상 등 4관왕에 빛난 ‘기생충’이 아니었다면 한국 관객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은 봉준호 감독 표현대로, 세계 최대 대중적 영화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의 ‘로컬(지역) 영화상’으로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올해 윤여정의 수상 기대감은 시상식을 더욱 친밀감 있게 바라보게 한다. 그만큼 26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진행 방식도 시선을 모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부분 영화제와 영화상 시상식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것과 달리 오프라인 대면 시상식을 고수해 더욱 그렇다.

올해로 93회째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이원으로 펼쳐진다. 시상식은 미국 지상파 방송사 ABC가 전 세계 생중계한다. 앞서 매년 2월 말 열렸던 시상식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올해에는 4월로 연기됐다. 감염병 확산으로 영국 런던 등 유럽 출신 일부 후보자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한다.

참석 인원도 최소화한다. 시상식에는 각 부문별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작 관계자, 시상자만 참석한다. 시상식 직후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열려온 파티도 올해는 취소됐다.

배우들의 화려한 레드카펫 이벤트도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세 명의 사진기자와 일부 시상식 생중계 스태프가 레드카펫 위에서 배우 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예년처럼 세계적 톱스타들이 줄지어 레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2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이를 하루 앞둔 25일 시상식장인 미국 LA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관련 스태프가 ‘오스카’ 장식물과 레드카펫을 점검하고 있다. LA(미국) AP·뉴시스

드카펫에 올라 다채로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배우·감독·제작자·비평가 등 영화전문가로 구성된 6000여 회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자(작)에게 ‘오스카’ 트로피를 안긴다. 이들은 21일 모든 투표를 완료하고 시상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MPAS 회원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투표를 마치고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함께 시상자로 무대에 선다.

윤여수 기자



MBC '수사반장'의 주역 최불암·조경환·노경주·김상순. (오른쪽부터) 스포츠동아DB

국민드라마 ‘수사반장’ 종영 32년 만에 부활

MBC 60주년 리메이크 버전 기획 최근사건 바탕·스타작가 협업 고려

드라마 ‘수사반장’이 종영 32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한때 시청률 70%에 달하는 인기를 모으며 ‘국민드라마’로 불린 작품의 새로운 면모가 기대를 모은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는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아 ‘수사반장’ 리메이크 버전인 ‘수사반장 리부트’ 제작에 착수했다. 최근 본격적인 기획에 나선 MBC는 리메이크 방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내부 논의 중이며, 널리 알려진 스태 작가와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사반장’은 1971년 3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방영한 국내 첫 본격 수사드라마. 수사반장 최불암을 비롯해 김상순·조경환·남성훈·김호정 등 연기자들이 행사역을 사실적으로 연기해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현금수송 절도·택시 강도 등 실제 사건도 적극 소재로 삼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공공성까지 인정받았다. 이후 다양한 수사드라마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도 꼽힌다.

리메이크 버전도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최근 일어난 실제 범죄사건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앞서 2012년 리메이크를 추진하며 주요 배역까지 캐스팅했지만 무산된 아쉬움을 달랠 전망이다. 한 방송관계자는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으면서 제작을 가속화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수사반장’과 함께 자사 대표 드라마로 꼽히는 ‘전원일기’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관련 움직임도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